

일간보사 1/27

녹색의 電話, 두달새 1백13건 相談

大氣관련 가장 많고 地域別 서울이 1위

「녹색의 전화」(대표·朴英淑평민의원·784-2003~4)가 지난 8월 28일 개설된 이후

두달동안 모두 1백13건의 상담이 접수돼 하루 2건이상의 환경공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전화를 오염원별로 구분하면 대기가 25건(9월말기준·총접수8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음진동 21건·폐기물 18건·수질 9건·주거환경 5건·골프장및자연훼손 각각 2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등 기타가 5건이었다.

상담전화는 특히 개인상담이 73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집단민원도 16건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 17건·충청 6건·경상 5건·전라 1건·기타 14건(익명제보) 순이었다. 또한 상담전화를 건 이유를 목적별로 나누면 피해구제가 46건으로 환경공해의 피해를 직접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고 건의 16건·예방 11건·제보 10건·고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녹색의 전화」상담자인 申창현씨(평민당전문위원)는 『상담내용의 주종은 공장의 환경오염이다』라고 말하고 『수질은 공장폐수, 대기는 공장굴뚝매연, 그리고 소음진동은 도시형공장과 건설소음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상담例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文安씨(35세)는 인근 피아노학원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高3입시생자녀의 학습에 방해를 받자 학원측에 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허가부서인 관악교육구청에 진정했으나 학원측이 교육구청의 시정지시도 묵살하자 녹색의 전화에 상담을 요청.

「녹색의 전화」는 생활소음의 경우 민원제기는 교육구청보다는 구청환경과에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주었으며 文씨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아노학원이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추므로써 소음으로부터 벗어났다.